

전북 야권 선거 프레임 윤곽

더민주 '정통야당으로부터 정권교체' 국민연당 '친노 패권주의 청산' 표방

야권 개편 핵심인 전북 의석 수 확보에 당선이 걸려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번 선거 프레임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더민주당은 '정통야당으로부터의 정권교체'를 국민의당에서는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부르짖으며 전북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허윤정 더민주 선대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 전북 후보들이 '호남정신'을 외치며 연일 전북정치 복원을 주장하는 데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호남정신과 전북정치가 무엇이고, 이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할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공천을 받은 전북의 후보들은 과거 우리당의 대통령후보부터 국회의원, 시장 군수를 지낸 분들이 대다수로 자신들의 공격하는 당의 공천과 지원으로 화려한 경력을 갖게 된 사람들"이

라며 "이들에게 호남정신과 전북정치는 자신들의 당선을 위해 차용한 명분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의회 의장 출신인 김광수 전주갑 후보의 경우는 지방의원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시뒀한 점을 유성연 정읍고창 후보에 대해선 동료의원과 자신을 비판한 기자에게 막대한 점, 정동영 전주병 후보는 더민주 전신인 열린우리당 의장과 17대 대선후보까지 지낸 인물임을 예로 들었다.

이어 허 대변인은 "이런 분들이 과연 호남정신이나 새 정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호남정신은 정권교체를 통해 새누리당 정권 경제 실패를 심판하는 것"이라며 "더민주당 후보들이야말로 참신한 정치신인들로 새정치를 실현할 일꾼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후보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아 자신이 몸담았던 당에 무수한 상처를 주고 이제 야권연대의 국민연당조차 거부하고 있다"면서 "더이상 호남정신과 전북정치를 더럽히지 말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당 소속 후보들은 친노패권주의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연당 전주갑을병 세 후보들은 3일 전주 객사 유세현장에서 "친노 패권정치를 물러내지 않으면 지속적인 호남 차별과 호남정치의 변화로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면서 "저희 세 후보는 잃어버린 4년을 회복하고, 전북정치를 대한민국의 중심에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이어 "질려야 질 수 없는 2012년 4월 총선과 정권교체 변곡점인 12월 대선에서 졌다"면서 "우리 호남인은 1997년 김대중 후보 때보다 2002년 노무현 후보 때 더 많은 힘을 문재인 후보에게 물렸지만 원통하게 안타깝게 패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당시 전북에서는 친노가 아닌 고 신진 전 의원과 조배숙 전 의원,

강봉균 전 의원 등 재선 이상 중진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면서 "당시 한명숙 의원과 문재인의원, 이해찬의원, 문성근 씨 등 지도부가 모두 친노였지만 전주를 비롯해 전북 도처에서 공천 학살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7년 민주당은 정동영 후보를 대통령후보로 공천했고 당과 당원들은 당연히 정 후보를 지원해야 할 청와대 참모와 일부 친노세력은 다른 후보를 도왔다"면서 "청와대 참모들이 '정동영이 멀어져도 상관없다, 이명박이 왜대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것을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워싱턴의 미 국무부에 보고한 전문이 위키리크스에 폭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는 타협하지 않았다. 강고한 친노 패권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친노 하청정치를 추방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잃어버린 4년을 회복하고, 전북정치를 부활시키고, 호남정치를 복원해서 야권을 수권정당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2년 당시 전북에서는 친노가 아닌 고 신진 전 의원과 조배숙 전 의원,

4.13 선거 RUN·RUN·RUN

김광수의원, 이중호수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국민연당 김광수 국회의원 후보(전주갑)는 이중리 일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과 연계한 이중호수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을 주요 총선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4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과거 화려했던 이중리 인근 상권이 전주 서부·북부권 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최근 몇 년 새 급속한 침체를 보이며 변방으로 전락했다"며 "국회에 진출하면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이중호수를 대대적인 친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 인후동과 이중리 일대 화려한 옛 명성을 반드시 되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특히 "한옥마을~기린봉~이중호수 연계 개발을 통해 한옥마을에 지나치게 편중된 관광객을 적절하게 분산함으로써 한옥마을 과밀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전주 동부권 경제에 숨통이 트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이한수후보, 농업 6차 산업추진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호3번 국민연당 익산갑지역 이한수 후보(이하 이 후보)가 "생선과 가공 그리고 관광이 접목된 익산시 농업 6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온 정열을 쏟아 붓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오전 익산시 모현동 국민은행 앞 사거리 유세에서 "도·농 통합 도시인 익산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201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국비 800억 원과 지방비 200억 원 등 총 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입하여, 명실 공히 전국 최고의 6차 산업 농촌 특성과 도시로 익산시를 탈바꿈 시키겠다"고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익산시 인구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시장 재입시절 야심찬 의욕을 갖고 추진한 국가식품플러스센터와 아울러 곳곳에 산재한 풍부한 백제문화유산을 접목시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갖고 있다"며 확신에 찬 공약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또한, 이한수 후보는 "익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한편 이를 체험보고관광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6차 산업 집중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도 도입 운영하겠다"고 피력했다.

6차 산업 활성화를 일환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강조한 이 후보는 이날 "농산물 가공 및 체험시설은 물론 휴양마을과 농가 맛 집, 농촌교육농장 등도 함께 육성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이 관광연계로 이어져 농촌경제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강동원 후보, 모 언론사 선관위에 정식 고발

무소속 강동원 국회의원 후보(남원임실순창)는 4일 도내 한 언론사 여론조사사를 남원선관위위원회에 정식 고발했다.

강 후보는 "해당언론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머리기사에 제시한 통계와 다른 근거없는 엉터리 통계를 이미지 그림판으로 제시해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또는 특정인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보도한 악의적인 기사"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또 "해당언론이 불법적으로 지역구 관내 아파트 우편함 곳곳에 투입된 사실을 발견해 선관위 단속원이 긴급 출동해 증거물을 확인 중"이라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엉터리 수치를 보도한 해당언론사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노한다. 선관위와 수사당국은 공명선거 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치는 이같은 엉터리 보도를 한 해당언론사에게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총선 선거인 5060세대가 43.3%

4·13 총선에서 5060세대 유권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총선 선거인 중 50대와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선거인은 총 837만5862명이고, 60대 520만1858명, 70대 이상도 463만6608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 19대 총선 선거인 현황과 비교해 보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비율이 감소했지만 50대와 60대 이상 선거인 비율만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19세(1.80%→1.60%) ▲20대(16.60%→16.00%) ▲30대(20.40%→18.10%) ▲40대(22.00%→21.00%) 등이다. 반면 50대 선거인은 19대 총선 당시 18.90%에서 20대 19.90%로 1% 늘었다. 60대 이상 선거인도 20.30%(19대)에서 23.40%(20대)로 3.1% 증가했다.

/이상주기자



그만큼 싸워요

4일 오전 10시30분께 원주무주진안장수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와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의 지지자와 선거운동원들이 유세차량 위치를 문제 삼으며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 민의 수렴 당초 취지 무색

온갖 편법·불법 동원해 사실 왜곡...유권자 반응 냉랭

여론조사가 민의 수렴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다자간 대결이고 여론조사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후보마다 인지도 높이기 위해 목을 매고 있다.

이런 탓에 후보측은 언론가판들의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날짜 정보 확보에도 열안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투표 6일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금지되기 때문에 마지막 여론조사 지지를 끌어올리기에 사

활을 걸고 있다.

문제는 여론조사에 온갖 편법과 불법이 동원되면서 민의를 왜곡하게 아니냐는 지적도 불려일으키고 있다는 점.

실제로 대부분의 후보들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비정상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만을 퍼뜨리면서 후보등록 선거 중반 기 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때문인지 여론조사 결과를 대하는 유권자들의 시선도 차

늘하게 식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기관마다 차이를 보이는데다가 응답률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나오자 믿을수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여론조사 공해'라고 일컬을 정도로 반감을 보이고 있다.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지적이 일고 있지만 여전히 후보들은 결과에 민감하다. 특히 공표 금지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결과가 일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최대한 높은 지지를 확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별취재반

박종길 후보, 전통시장 활성화 입법 활동 적극 추진

기호1번 박종길 새누리당 국회의원 익산(을) 후보(이하 박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3일 여산 5일장에 모습을 드러낸 박 후보는 서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저는 서민정치, 민생정치를 펼쳐나 가겠다. 지금 "일장을 찾는 사람들"을 바라 하리가 굶고 삶의 질도 하락



했다.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며 서민층을 공략했다.

이어 박 후보는 "전통시장 활성화 입법 활동, 제도 마련에 나설 것",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등으로 위촉된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상점이 현대화 사업을 통한 점포별 특성을 살린 인테리어 등으로 위촉된 상권 활성화 하겠다"고 강한 의지력을 또한 피력했다.

특히 박 후보는 "전통시장 활성화 세부계획으로 ▲상가용 특별회계 화재보험 상품 개발 추진 ▲소액대출 조건완화를 통한 금융지원 확대등의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약속했다.

조배숙 후보, 백제유적지구 사업 마무리 기회달라

국민연당 조배숙 후보(익산 을)는 멈춰버린 익산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며 4선의 정치적 힘만이 멈춰버린 익산발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 후보는 "18대 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농식품위원회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바꿔가면서까지 국가식품플러스센터에 익산에 유치했



으며 "2006년 당시에는 터무니없다고들 했지만 국회문화관광위원회장으로서 익산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의 단초를 마련해 마침내 우리나라에서 12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국가식품플러스센터와 백제역사유적지구 사업을 시작했던 제가 마무리도

잘할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4선 의원은 여야를 떠나 막강한 정치적 힘을 갖게 된다"며 "민약 익산사람들의 지지로 4선 의원에 당선된다면 익산의 가치를 두 배로 키워놓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박종열 후보, 응원단 청년들과 환경미화

선거 유세가 한창인 현재 익산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국민의당 박종열 도의원 후보와 응원단 청년들이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양심을 찾아 나섰다.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페트병, 담배꽂초 등 쓸 수 없이 많은 쓰레기를 찾을 수 있다.

꼭두새벽부터 익산시의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미화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하루였으며 슈퍼맨 박종열과 오전 내내 환경미화를 하며 고생한 슈퍼맨 응원단 청년들도 젊은 땀방울 흘리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보람찬 하루였다.

박종열 도의원 후보는 선거운동기간동안에도 예비후보 때와 다름없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익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현장에서 발 빠르게 뛰는 선거운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취재반

강팔문 익산시장 후보, "가족친화도시 만들어 가겠다"

지난 2일 강팔문 익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개소식에는 더불어 민주당 인제영 입위원장 김삼곤을 비롯하여 1,000여 명의 시민들과 지지자들이 참석하여 강 후보를 지지하고 승리를 위해 모든 전력을 다하여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강 후보의 익산을 향한 꿈을 공유하는 연철은 참석자들로 하여금 많은 호응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았다.

강 후보는 "부도직전의 화성도시공사를 부임 후 1년 3개월만에 흑자전환 시킨 '경영의 힘'으로 이제 익산시를 흑자 전환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가족모두가 행복한 가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별취재반